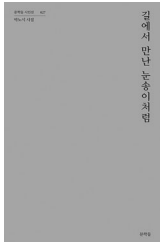


‘아침 눈뜨면 시를 쓴다’ 사계절 그린 사랑시 64편

길에서 만난 눈송이처럼

박노식 | 문학들 | 1만원



박노식(사진) 시인이 네 번째 시집을 펴냈다. 사랑에 대한 시 64편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나누어 담았다. 객재구 시인은 추천의 말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그는 아침에 눈 뜨면 시를 쓴다, 꽃이 피면 시를 쓰고 바람이 불면 시를 쓴다. 초승달이 산마음을 찾아올 때 시를 쓴다. 장맛비에 거미줄을 비운 거미를 생각하며 시를 쓰고 며칠간 거미가 굶을 것을 생각하며 시를 쓴다.

그의 시에 세상을 향한 선언이나 양심을 위한 인간의 고백 같은 고상한 몸짓은 없다. 오직 시와 자신만의 대면이 있을 뿐이다. 길에서 만난 눈송이에게, 새털구름에게, 물 위에 뜬 산그늘에게 인간의 시를 들려주는 그의 모습은 따뜻하고 평화롭다.

하지만 사랑은 멀고, 시 또한 멀리 있으니 시인은 불화할 수밖에. 시인은 그 연원을 유년의 ‘그늘’에서 찾는다. “내 시의 처



음은 그늘에서 왔다/이른 자의식은 끔찍한 독백을 낳는다” 본래 독백 혹은 내밀한 자기 고백은 자조적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달빛이 부서지는/대숲 속에서 웅크렸으므로 환희가 없고” “말로 살지 못해서/나에겐 시가 없다”(꿈속의 웅달샘처럼) 그런 그가 중년이 된 어느 날 고물상에서 주워 온 동근 시계를 벽에 걸어두고, 그것의 실존만큼이나 늦어버린 자신의 시 쓰기를 걱정하고 다짐한다.

그러니까 그의 시 쓰기는 오래전 잃어버린 ‘환희’와 ‘말’을 되찾는 일이다. 독백에 섬세한 체험이 들어설 때, 어떤 본연의 껍질이 들어설 때 사랑의 감옥, 시의 감옥에서 사계절을 끄꽂 앓는 시인의 시에 돌연 생기가 돈다.

“시는 오지 않고/기다림마저 떠나버릴 때/어느 고적한 곳으로 나를 데려가는/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지/눈을 뜨니까 그가 몰래 와서/내 곁에 누워 있었던 거야”(시가 찾아오는 순간)

“작은 꽃씨 하나도/견딜 수 없을 땐 터진다/통곡은 이처럼 자기를 깨부순다/빛나는 연애는 여기에 있다”(빛나는 연애)

시도 아닌 것을 붙들고 애걸복걸할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시가 기다림마저 떠나버릴 때에야 새들의 노랫소리처럼 곁에 와 있다는 깨달음, 작은 꽃씨 하나도 견딜 수 없을 때 터지듯이 자기를 깨부술 때에야 빛나는 연애가 있다는 깨달음, 이것이 그의 시가 사랑이 세상과 화해하는 비밀이다.

고재종 시인의 추천글이 와닿는다. 박노식에겐 시가 사랑이고 사랑이 곧 시다. 박노식의 한 편 한 편의 시는 사랑의 대상에 대한 울렁거리고, 서럽고, 맹렬하고, 지독히 아픈 사랑의 고백이다. 그 한 편 한 편 사랑의 고백은 다시 시일 수밖에 없다. 바로 그 대상을 향한 마음에서 모든 시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사랑이 인물이거나 아니거나 시는 이미 상상력의 가공을 거치기에 다르거나 가닿을 수 없는 사랑의 환상이기도 하리라. 나이 육십 세

를 넘어서까지 사랑의 환상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하지만 박노식의 사랑의 우울과 서러움은 이게 또한 지옥이 되기도 하는 걸 어떡하랴.

한편 박 시인은 광주공고와 조선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수료했다. 2015년 ‘유심’에 ‘화순장을 다녀와서’ 외 4편으로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고개 숙인 모든 것’ ‘시인은 외톨이처럼’ ‘마음 밖의 풍경’을 펴냈으며 지금은 화순군 한천면 오지에서 시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2018년 아크코문학창작기금을 수혜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위기의 순간, 운명 지키는 무기는 명리학”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초명 | 멀리 깊이 | 2만4500원



지난 4월 방영된 티빙 오리지널 다큐 프로그램 ‘MBTI vs 사주’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각각 다섯 명의 MBTI 전문가와 사주 전문가가 150명의 참가자를 분석해 “갑자기 흘러나온 음악에 누가 가장 먼저 춤을 출 것인가?”를 예측한 장면이 주목받았다. 이때 사주 전문가로 출연한 명리학자 초명은 식상이 발달한 129번을 콧 집으며 ‘100퍼센트’ 춤을 출 타입으로 꼽았다. 음악이 흘러나오자 평소 낯선 환경을 부담스러워 한다던 129번 참가자가 무아지경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 장면으로 유명세를 탄 초명은 ‘명리학을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쉽게 사람의 성향을 살필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한다.

저자 초명의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기본편’은 누구나 자신의 사주를 직접 풀이하고 다가올 미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명리 입문서다. 명리를 공부했다가 흥미를 잃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많은 만큼, 책에 담긴 다양한 명리학 기술문제와 풀이노트가 색다를 재미를 더한다.

신혼 시기에 이혼을 고민하던 저자는 융하다는 철학관을 순회하다, 다짜고짜 여러 번 이혼할 사주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는다. ‘인간은 정해진 운명을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에 분노하다 음약평론가이자 명리학자인 스승 강현을 만났다. ‘운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붙잡고 끈질기게 공부한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기본편’는 자신의 사주팔자를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읽어나야 하는지를 자세히 담고 있다. 친

절한 시각자료와 일목요연한 정리도 장점이지만 저자만의 현대적인 명리학적 해석이 녹아들어 에세이를 읽듯 읽힌다. 저자가 ‘명리커뮤니케이터 초명’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대중들과 소통해온 만큼 책을 넘기다 보면 누구나 명리학을 통해 단계별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저자는 수준과 상관없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상담가가 되길 바란다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책을 읽은 독자들이 적절한 소양을 갖추고 언젠가 상담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했다. 현장에서 사주를 살필 때 확인해야 할 유용한 팁이나 상황별로 상담가만이 해줄 수 있는 저자의 조언이 깊이를 더한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냐”는 물음에 저자는 “자본주의적 상술에 기반한 사기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개인의 운명 또한 고정될 수 없다는 것. 저자는 고전의 해석에만 갇혀 성별의 역할을 고정시키고 사주를 품평해 온 기존의 사주 해석이 명리학을 대중과 멀어지게 했다고 비판한다.

추천사를 쓴 명리학자 강현은 “고리타분한 팔자타령을 단숨에 뛰어넘은 책으로 나를 지키는 방법론으로 명리학적 핵심을 신세대다운 직진의 힘으로 파고들었다”고 평했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명리를 활용할 줄 안다는 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려주는 지침서를 손에 쥐게 되는 것과 같다. 이 책을 통해 위기의 순간 나를 지키는 무기로서 명리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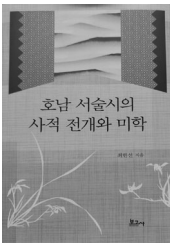
온라인 서점(알라딘, 교보문고, Yes24)에서 책 구입 시, 저자가 내년에 철공소닷컴(https://k-fortune.com)에서 진행할 명리강의 5%할인 수강권을 상품으로 얻을 수 있다.

도선인 기자

호남 서술시사 600년, 16개의 선각적 눈으로 조망

호남 서술시의 사적 전개와 미학

최한선 / 보고사 / 38000원



호남 한시단 600년 역사를 16개의 선각적 눈으로 조망한 책이 발간됐다. 전남도립대 명예교수 최한선 교수가 수년에 걸쳐 야심차게 저술한 ‘호남 서술시의 사적 전개와 미학’이다.

최 교수는 중2 시절까지 서당에서 한자와 한문을 배웠다. 그것이 운명이 되어 고전문학을 전공해 40여 년 동안 대학강단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가르쳤다.

대학원에서 한시, 가사, 시조 등 고전시가에 대해 집중하던 20대 중반 무렵 최 교수는 고전시가론 강의를 준비하던 중 평소 무심히 들었던 판소리가 달리 들렸다. ‘춘향가’의 하이라이트인 변사포의 잔치

상에서 이몽룡이 내뿜은 시 한 수이다.

‘금준미주(金樽美酒) 천인혈(千人血) / 옥반가호(玉盤佳肴) 만성고(萬姓膏) / 축루낙시(燭淚落時) 민루락(民淚落) / 가성고처(歌聲高處) 원성고(怨聲高)’.

판소리의 구구절절 꼬고 비틀며, 당겼다 튕겨서 풀어내는-서술시적 발화-우리네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 같은 이 익숙한 느낌, 이 백성의 힘, 아니 민중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오랜 세월 남도인의 가슴에 켜켜이 쌓이고 쌓인 전통의 분출이라는 생각에 깊게 꽂혔다.

이런 꽃힘은 호남 시단의 모태인 누정에 대한 관심을 낳았고 얼마 후 호남 시단의 적층된 전통의 힘, 곧 호남 시단을 면면하게 이어온 시학은 무엇일가의 의문으로 이어졌다. 이후 최 교수는 호남 한시에 대해 본격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호남 시는 낭만적 서정성, 방외적 저항성, 섬세한 언어미 등이 끊임없이 계승,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된다.

책은 1장 금남 최부, 2장 놀재 박상, 3장 면양정 송순, 4장 석전 임억령, 5장 송재 나세찬, 6장 하서 김인후, 7장 행당 윤복, 8장 송천 양응정의 서술시를 담았다.

이어 9장 풍암 문위세, 10장 청계 양대박, 11장 칠실 이덕일, 12장 고산 윤선도, 13장 죽목 윤효관, 14장 다산 정약용, 15장 초의 장의순, 16장 경회 김영근의 서술시를 살폈다.

문화의 힘은 유구한 전통에 있다. 시학도 마찬가지. 남도를 지키고 이끌어온 시창작의 힘, 그것은 남도의 뽕밭처럼 진하고 질펀하며 도도한 적층(積層)의 힘이다. 적층은 전통이요 전통은 곧 역사이며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대한 힘이다. 최 교수는 책을 통해 이런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호남 시, 한국의 시가 더욱 다채롭고 풍요로우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승, 발전되기를 소망한다.

도선인 기자

시공간을 어루만지면

박영란 | 창비 | 1만3000원

고등학교 ‘나’는 동생 ‘준’, 그리고 엄마와 함께 오래된 단독주택의 2층으로 이사왔다. 세상에 회의감을 느낀 아버지는 얼마 전 고향 장원으로 떠나고, 나머지 가족들은 도시에 남은 것이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집안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반면 양자역학에 푹 빠져 있는 초등학교 준은 한 공간에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명량함을 잃지 않는다. 어느 날 나는 집에서 들리던 미약한 종소리와 쇠소리가 1층에 숨어 사는 이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들은 ‘서백자’라는 할머니, 그리고 ‘자작’ ‘종려’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의 어린 손주들이었다. 이들은 어떤 사정으로 1층에 숨어 있던 것일까?

나의 막노동 일지

나재필 | 아람 | 1만7000원

중장년이 되어서 청년 시절에 꾸었던 꿈을 돌이켜 보는 것은 달을 수 없는 높이에서 떠 있는 솜사탕을 올려다보는 것 같다.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해온 한 중년의 가장이 갑작스러운 조기 퇴직 후 단기 일용직 아르바이트, 식당 주방보조 등을 전전하며 재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막노동판에 뛰어들어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된다.

이 책은 은퇴 후에도 계속 먹고살 걱정을 해야 하는 기성세대들의 비참함과 아리리리 가득한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동시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을 이겨내고 성실한 노동을 통해 앞으로의 삶을 살아내면 된다는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